

꿈과實現



한국코트렐(주) 회장 이달우
02-3206-101 twice@cottrell.co.kr

〈필자약력〉

-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
-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공학과 졸업
- 조선전업 주식회사 입사, 화천발전소 근무
- 미국 Pacific Bechtel Corp. 영월 화력발전소 건설 사무소 근무
- 한국 코트렐(주) 설립, 대표이사 취임 (1973. 11. 27)
- 국제 전기집진학회 이사
- 한국 전기집진학회 회장
- 한국 기계공업진흥회 환경설비산업 협의회 회장
- 서울국제싸이엔스클럽 회장

〈賞 罰〉

- 1993 | 제1회 환경대상 환경과학기술대상 수상 (환경처, 조선일보사)
- 1999 | 은탑 산업훈장 수상(대한민국)
- 2006 | 한국을 일으킨 60인의 엔지니어상 수상 (매일경제, 서울대 공동 주최)

韓國에서 環境에 對한 公害 問題가 提起되고 이에 對한 汚染防止 設備가 論議되기 始作한지도 어언 40余年의 歲月이 흘렀습니다. 電氣工學을 專攻한 한 工學徒인 本人의 눈에 電氣集塵이 興味로운 技術分野로 비치어 國産化에 큰 意義를 느끼어 專念하여 온 지도 40余年이 흘렀습니다. 人生을 사는 가르침의 하나에 “한 우물을 파라.” 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나는 이를 우연히 잘 實踐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. 따라서 작은 것이 나마 이루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.

사람들은 各者 自己만의 꿈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. 이를테면 人生이란 各者의 꿈을 實現하는 過程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. 큰 꿈, 작은 꿈 그 內容도 사람의 數만큼이나 다릅니다. 그러나 各者가 自己의 꿈을 얼마만큼이나 이루었느냐(成就하였느냐)는 중요한 문제이고 人生의 삶이 한 尺度가 될 수 있습니다.

작고 알찬 꿈은 이루어지기 쉽고 허황된 큰 꿈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. 알찬 꿈이란 現實性과 具體性이 充分히 뒷받침 되어 짜여진 精鍊된 꿈이어야 합니다. 따라서 꿈은 靜的이 아니하며, 끊임없이 各者의 成就에 따라서 人生의 目標을 새로이 設定 提示하는 動的인 存在입니다.

